허영과 신앙

역사의 미래에 관한 관념들

Aldo Poblete Varas

Ⅰ. 카시오페이아, 또는 생성할 수 없음

인간 안에는 특정한 종류의 행위로 향하는 경향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경향들이다. 본성은 실천을 통해, 시간에 걸친 행함을 통해 자리 잡는 것이다. 본성은 근본적으로 반복이다. 특정한 종류의 행위를 수행하려는 경향은 종의 모든 구성원이 경험하며, 의식이 처음 우리에게서 솟아난 이래로 줄곧 그래왔다. 이 경향들은 마찬가지로 거대한 인간 집단에서도 경험되며, 따라서 관찰할 수 있다. 작거나 최소인 규모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큰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이 경향들은, 있어왔던 것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려는 듯하다. 물론 같은 형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각주를 언제나 달고서. 양태는 달라지는 반면 내용은 지속된다. 민족들의 발전 속에서 이 경향들은, 그 멍에 아래에서 살고 번성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강하게 만드는 신화와 짐으로 변성된다. 경험 자체에 의해서든, 뒤따르는 이론적 정교화에 의해서든, 대체로 간과되는 것은 경향들이 어떤 무게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 무게는 거의 정의상 과정들에 스며들어, 모든 순간이 전제하는 유동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끝내 펼쳐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것에는 경향들이 있으며, 이들은 진보의 관념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사물들은 조만간 제 물길로 돌아온다는 의혹이 언제나 남기 때문이다. 역사에는 거대한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은 경향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 모든 것에서 문제적인 부분은, 이 경향들에 어떤 비극적 분위기, 결국 모든 것이 파멸과 절멸로 이어진다는 일종의 감정이 가미되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들에는 자기애가 많이 들어 있다. 그런 식의 경향들은 처음 자신들에게 존재를 부여한 이들의 영향 아래 너무 깊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자신들을 세계에 내놓은 존재들의 천재성과 비참함이 넘친다.

인간의 여정은 실재를 벼리는 이들의 미적 향기에 의해 기후가 조성된다. 행위를 통해서든 행위의 부재를 통해서든, 범속한 이들에게는 언제나 미정으로 나타나는 운명의 음산한 골목으로 대중을 이끄는 이들의 향기에 의해. 이 여정 전체를 통틀어 권력이 자신에게 스며들게 하는 데 성공한 특성들에 완벽함이 들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전망들을 말한다. 한 번도 사유된 적 없는 영토와 세계들을, 혹은 사유되었더라도 오직 극히 주변적이고 단편적으로 사유된 영토와 세계들을 포괄하는 전망들을.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존재들의 개입 덕분에 가능한 것들. 이 존재들은 과업의 헤아릴 수 없는 무게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파괴되곤 했다.

경향들이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중심이라는 관념이 무의미하며, 전진하는 모든 것이 자기 꿈에 갇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Ⅱ. 주변적 관념으로 열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아마 이에 답하는 유일한 길은, 더 정확히 말해 이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단서라도 내놓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 관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을 것이다. 첫째, 자의적인 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구성한다는 것. 둘째, 자의적인 것은 의지가 아니라 복종과 동의어라는 것.

지배의 기원을 모르면 복종할 수 있는가? 답하려면 질문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단언해야 한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배의 기원을, 우리의 실존에 자기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모른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실존을 인도하는 것, 곧 경향들을 우리는 아주 잘 안다. 그럼에도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대한 운동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반드시 지식을 뜻하지는 않으며, 그런 역학에 대한 참여는 더더욱 뜻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20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확신들의 축적이 낳은 논리적 귀결이었고, 그중 어느 것도 수렴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서로 모순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런 모순이 실제로는 전혀 모순이 아니었으며, 오직 관점의 문제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주관성과 그 안에 내포된 고통이 얼마간 규정된 도덕적 질서의 환원 불가능한 징표라는 생각에 극도로 취약하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

없이도 되며, 실제로 우리를 그 경향을 구조적으로 흐리거나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과정들을 구상하기란 아주 어렵다. 그렇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오직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은 고도에 위치시킨 이에게만 고유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향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대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모든 경향들이 강의 지류들처럼 결국 수렴하는 그 경향. 그 모두를 통합하고, 모두로부터 단지 양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향을.

또한 우리의 개념들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과 불완전함으로 가득한 이 개념들은 작은 경향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사나운 예들이다. 우리는 아직 다른 수준에서 작동할 도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과학은 그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과학계의 일부가 자신이 어떤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고 믿거나, 오직 현상들의 혼돈스러운 출현에만 인도된다는 분명 유치한 관념을 품더라도.

지금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순간이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편을 들고, 서로 대립하는 진영 사이의 가능한 합일과 관련된 모든 관념을 옆으로 치워야 한다. 우리는 무기를 드러내지 않고, 몸을 숨기고, 아직 어두운 숲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고, 공격할 순간이 올 때까지 웅크려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다.

Ⅲ. 삶은 거짓이다

신화들로 가득하고, 영웅들로 가득하고, 우리보다 앞선 이들의 재난들로 가득한 채, 교육과 침묵의 힘으로 우리에게 강요된 분위기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 이제 목이 잘린 왕자들이 낡은 성을 떠돌며 새로 온 손님들을 놀라게 하듯,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토록 집요하게 정의하려 했던 인간성의 무언가를 되찾으려 한다. 지금까지 소수만이 그나마 제대로 이론화한 인간성을. 이 모든 살로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과학의 시대에 있다. 광신자와 금욕자의 도구인 과학. 그들은 유령 같은 언어로부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세계를 조금씩 통제한다. 비난해 봐야 헛될 어리석음 때문에 그 다수가 반대를 믿는데도 말이다. 우리를 기르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하는 양수, 이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갇혀 있는 거대한 혼란에 대한 최선의 답들이 제시된다.

있는 모든 것과, 가장 중요하게는 있어왔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더 진보한 수학을 통해서 인간은 거대한 경향이라는 이 거대한 우리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이야말로 이 거대한 재구성을 조직하도록 요청받는 학문이다. 여기서 재구성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여정 내내 존재해온 파괴의 형태들을 끝내는 일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과 정밀과학의 세계들을 상당 부분 결합해야 할 이들은 역사가들이다. 어느 한쪽에 특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쪽에 한 발씩을 두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아직 부끄럽지 않게 내뱉을 수 있다면. 어쨌든 그것이 근본적인 생각이다.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과업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관해 이론화할 수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분명 머지않아 의문에 부쳐질 것이다. 일반적 윤곽보다는 기술적 세부에서.

우리가 될 것의 상당 부분은 첨단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들. 하지만 역사가로서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있는 것을 포괄하는 방식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계들이라는 것이다. 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형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변하지 않은 채 남아야 하는 것은 후자다.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안다는 가정 아래에서.

그러므로 인간 발전의 경향들에,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도구로 빛을 비추고, 경향들 이상의 무언가를, 아마 역사의 의미에 관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는지 보도록 요청받는 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들이다. 물론 우리는 이행의 순간에 있으며, 우리의 관점을 순식간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선형적 발전 속에도 있지 않다. 여러 방향이 뒤섞이며 부주의한 관찰자를 쉽게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이라 부르는 것을 폭로하거나 구성하는 징표를 추적해야 할 곳은 경향들 안이다. 더 나은 예후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구들과 함께 틀어박혀, 조금이라도 유효한 신호가 오면 수신을 시작한다. 다른 관념들 중 하나인 이 관념은 검은 태양처럼 검은 중심을 갖는다.

Ⅳ. 태어남을 그치기

그러므로 역사가들의 과업은, 그것이 그들의 과업이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면, 거대한 재구성이 수행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라는 관념의 파괴로 우리를 이끌고, 모든 현실이 동시에 존재함을 받아들이도록 실존을 열 것이다. 다만 이는 어떠한 정지나 영구적 구원의 관념도 수용함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경계 지어지고, 문자 그대로 우리의 세계체계 안에 제약될 것이다. 이 체계에는 고유의 강점들뿐 아니라 무방비의 측면들도 있으며, 후자는 대체로 실존적 가능성의 차원성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나타날 것이다.

기억의 관념 역시 재의미화될 것이다. 기억은 더 이상 이런저런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나중에 어느 정도 다시 사용하거나 단순히 다시 경험할 수 있는 패턴들을 저장하는 이들에게 고유한 현상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역사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지에 관한 전통적 영역 또는 개념을 확장한다.

이는 특히 의미심장하다. 역사학이 무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설명하는 일, 그리고 과거의 도래를 떠맡도록 현재를 준비하는 점점 더 나은 방식들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 개념의 전도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를 뒤에 있는 것으로, 미래를 앞에 있는 것으로 말한다.

인간 및 비인간 역사가들의 과업은 분명 거대한 지도를 만드는 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첫 단계에서는 그것이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더라도. 그들은 미래의 법 실무에서도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기초한 법의 관념들이, 어떤 분쟁이나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시각화하려는 체계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대체될 것을 고려하면 그렇다. 이 전망 앞에서 성급히 기뻐해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다가올 시대에 역사가 겪을 시나리오는 적어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역사는 자신을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자료 수집과 해석에 바쳐진 실천으로 이해하는 관념들을, 천천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뒤에 남기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모든 인문학이

비슷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모두가 논리와 수학으로는 포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신비나 질문의 관념에만 자신을 기초하는 관점들을 조금씩 바꿀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진정한 탈주술화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수적 정신이 예견할 것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아직 어떤 아우라와 어둠에 사로잡힌 많은 현상들을 덮은 장막이 모든 세부에 걸쳐 드러날 것이다. 이는 범속한 정신이 믿듯 그 현상들의 어떤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훨씬 깊은 즐거움을, 그리고 이 통과의 저편에서도 그 단어가 여전히 적용된다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뜻한다.

그러므로 걸려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은 생성의 화로에 불을 붙이고 동물 전체를 끓여, 사변에 가능한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이다.